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가 그리는 사랑: 세 가지 맥락의 ‘빌러비드’ 읽기

김 미 정

(경상대학교 조교수)

◆ 국문초록

본 논문이 주목하는 점은 모리슨의 『빌러비드』에서 ‘빌러비드’(Beloved)가 세 가지 맥락에서 읽힐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적으로 소설의 제목이 ‘빌러비드’이며,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명의 이름도 ‘빌러비드’이고, 마지막으로 소설을 마치는 마지막 문장 또한 ‘빌러비드’라는 한 단어이다. (라캉적인 맥락에서) 이미 상징계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불가능한 실재의 존재로서 ‘빌러비드’는 각 캐릭터들의 ‘자아’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관계’ 또한 재구축하여 회복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소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에 관여한다. 그와 더불어, 이러한 이야기를 읽어어나가는 독자들 또한 『빌러비드』를 통해 출몰하는 실재계적 파편들과 조우하도록 함으로써 독자의 재-주체화까지 촉구하고 있는 존재가 ‘빌러비드’(또는 『빌러비드』)인 것이다.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사랑’에 관한 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설에서 세 가지 맥락의 ‘빌러비드’를 읽어냄으로써 모리슨이 말하고자 하는 ‘사랑’의 의미를 고찰해보고, 또 그녀가 어떻게 『빌러비드』라는 글쓰기를 통해 그 ‘사랑’으로 독자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는지 해석해볼 것이다.

주제어 : 빌러비드, 『빌러비드』, 윤리적 읽기, 윤리적 사랑, 독자의 책무

1. 들어가는 말

제인 베이커맨(Jane S. Bakerman)과의 한 인터뷰에서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은 자신은 항상 사랑과 사랑의 부재에 관해서 글을 쓰는 셈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543). 모리슨의 『빌러비드』(*Beloved*, 1987), 『재즈』(*Jazz*, 1992), 『낙원』(*Paradise*, 1998)이 소위 제도화된 증오에 대한 응답으로써 뒤틀리고 폭력적인 사랑의 심리기제를 연구한 ‘사랑 삼부작’이라면(Alexandru 197), 이 중에서 『빌러비드』는 역사적 트라우마의 직접적 결과로써 고장난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 사실, 『빌러비드』뿐만 아니라 모리슨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사랑은 과도하게 기형적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너무 끔찍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행위에 드리운 베일을 찢는 것”(Morrison 1987, 110)이 작가로서 자신의 임무라고 천명해온 모리슨이기에 그녀는 단지 사랑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모리슨의 소설에서 ‘사랑’은 화두라기보다 수사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Alexandru 204).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모리슨의 소설에서 ‘사랑’은 오히려 부재함으로써 “목소리에 대한 권리를 쟁탈하기 위한, 그리고 인간다움을 재정의하기 위한, 이전에 박탈당했던 사랑에 대한 권리를 되찾고, 거짓된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한, 그리고 미국 흑인 공동체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획득하기 위한”(Alexandru 204) 가장 효과적인 수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미국 역사에서 노예제도가 유지되던 시기에 흑인노예들은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권리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한 비극적 역사의 결과로써 불구가 되어버린 사랑과, 그 역사를 재서술함(retelling)으로써 ‘자아’를 재구축해나가는 각각의 캐릭터들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 바로 모리슨의 『빌러비드』이다. 이 소설은 1856년 미국 신시내티에서 벌어졌던 충격적인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다. 마가렛 가너(Margaret Garner)라는 흑인 여자 도망 노예가 노예사냥꾼에게 붙잡히기 직전에 자신의 아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의 아이의 목을 베어버린 것이다. 등장인물인 폴 D를 비롯해 꽤 많은 비평가들이 자기 아이를 제 손으로 죽이는 세스의 ‘과도한 사랑’을 모성애라기보다는 괴물스러움으로 읽으며 비난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 ‘과도한 사랑’이 윤리적이냐를 따지기에 앞서 그러한 비극이 한 개인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없었던 노예’들의 참혹한 현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와 같은 비극을 읽기 위해, 그리고 그런 비극을 통해 저자 모리슨이 피력하고자 하는 사랑의 의미를 해석해보기 위해, 필자가 본 논문에서 특히 강조하는 점은 모리슨의 『빌러비드』에서 ‘빌러비드’(Beloved)가 세 가지 맥락

에서 읽힐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적으로 소설의 제목이 ‘빌러비드’이며,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명의 이름도 ‘빌러비드’이고, 마지막으로 소설을 마치는 마지막 문장 또한 ‘빌러비드’라는 한 단어이다. 모리슨의 ‘사랑 삼부작’ 중 하나이기에 기본적으로 ‘사랑’에 관한 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설에서 세 가지 맥락의 ‘빌러비드’를 해석해 봄으로써 필자는 저자 모리슨이 『빌러비드』를 통해 어떤 사랑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 독자들은 어떤 의무가 촉구되고 있는지 읽어볼 것이다.

II. 실재계의 파편, 혹은 경계성(Liminality)의 맥락으로 읽는 ‘빌러비드’

세스(Sethe)가 세 명의 자식 중에서 제일 먼저 딸아이를 살해하는 것은 딸이 주인의 성노리개나 인간 자분을 생산할 목적으로 매매되는 암말로 전락하는 길을 걷지 않게 하려는 어머니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이승은 152). 그런데, 안드레아 오레일리(Andrea O'Reilly)의 질문처럼, “한 여성이 ‘엄마와 딸’의 관계에서 (차후 모성적 자아로 변모할) 관계적 자아를 얻게 되는 거라면, 노예제처럼 그 유대관계가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88; Lillvis 458에서 재인용). 『빌러비드』가 노예제에 대한 미국의 “국가적 기억상실”(Taylor-Guthrie 257), 즉, 침묵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 위한 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스의 영아 살해는 한 개인의 특수한 사례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모리슨이 작품을 통해 말하듯이, 이 이야기는 “전해질 이야기가 아니었다”(It was not a story to pass on. 274)¹⁾. 백인 사회에서는 동의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고 흑인 사회 또한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냥 침묵할 수만은 없는 이야기였다. 사실, 미국의 역사에서 흑인들의 영구적인 상흔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가 부재했던 것에서 기인한다. 제대로 치유되지 못한 채, 성급히 봉

1) Toni Morrison, *Beloved*, New York: Vintage International, 2004. 앞으로 본문 인용은 괄호 안에 면수만 기입하기로 한다.

합(suture)되어 버렸기에 그 상처는 아물지 못하고 속에서 끓아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모리슨은 소설 『빌러비드』에서 어떻게 그 말해질 수 없는 것, 말해진 적 없는 것들을 재현해 내는가?

소설의 도입부에서 주인공 세스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똑바로 마주하지 못하면서 그로부터 벗어나지도 못해 정신적인 마비 상태를 겪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124번가로 체화된 외상적인 과거에 갇혀 현재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유령이 출몰하는 블루스톤 124번지는 ‘외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적인 숫자로만 존재한다. 세스가 저지른 과거 일이 그녀뿐만 아니라, 그 동네 전체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누군가에게 제대로 기억 되거나 말해지지 않은 역사적 트라우마들은 단순히 숫자에서 그친다. 과거 흑인 노예들이 노예 시절 그들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숫자로만 기억된 것처럼 124번지도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다. 라캉적인 맥락에서 소설 속 124번지는 ‘실재’(the real)의 유령이 출몰하는 공간이며, 서로 다른 영역의 사이 공간(in-between), 즉 경계에 걸쳐있는(liminal) 장소 아닌 장소(non-site)이다.

흥미로운 것은 『빌러비드』의 세 개의 챕터가 각각 124번지라는 말로 시작되고, 세 문장 모두 124번지를 의인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이 서려 유령이 출몰하는 124번지는 트라우마가 집적된 장소이며, 이 공간이 인간의 몸으로 현현한 것이 바로 작품 속 캐릭터 빌러비드(Beloved)이다. 실제로, 소설에서 빌러비드는 “내가 바로 이 집이야. 이 집이 바로 나야.”(123)라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124번지의 현현으로서의 빌러비드가 주인공 세스를 비롯한 다른 인물들의 ‘재기억’을 가능하게 만드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때문에 캐릭터로서의 ‘빌러비드’에 대해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그녀가 존재의 맥락에서도, 시간과 공간의 맥락에서도 경계적인(liminal) 인물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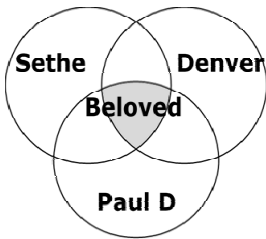
이에 대해 부연하자면, 흔히 빌러비드는 이름도 없이 죽임 당했던 세스의 어린 딸의 유령이 인간의 몸으로 귀환한 것으로 해석되곤 하지만, 정작 저자인 모리슨은 소설 속에서 빌러비드를 한 존재로 특정하지 않는다. 빌러비드는 세스가 18년 전 톱으로 썰어 죽인 아이의 환생일 수도 있고, 중앙항로(Middle Passage; 서아프리카에서 서인도 제도와 아메리카 대륙으로 노예를 운반했던 가장 긴 항로)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세스의 어머니를 포함해 중앙항로에서 노예선을 탔던 이들의 녀의 귀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노예선에서 도망친 생존자일 수도 있고, 또 혹은 혹은 노예들의 아픈 기억의 총체일 수도 있다. 그리하여, 빌러비드는 개인적인 것과 역사적인 것이 결합된 다중적이고 집합적인 존재이며, 그녀의 세계는 다분히 탈영역적이고, 탈시간적이다. 어찌되었던 '빌러비드'는 혹은 혹은 사회 전체의 아픈 상처를 가리키는 비극적인 이름이다.

그런데, 크리스틴 릴비스(Kristen Lillvis)는 과거 중항항로를 통해 농장에 끌려와 참혹하게 죽임 당한 세스의 엄마를 언급하며, 빌러비드가 세스에게는 예전에 죽인 딸이면서 동시에 과거에 자신을 남겨놓고 죽은 엄마를 대신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454). 그래서 세스가 현재의 빌러비드에게 엄마노릇을 하는 이유는 과거를 참회하고 보상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지만, 미래에 언젠가 자신의 죽은 엄마와 다시 함께하고자 하는 희망의 발현이라는 것이다(Lillvis 457). 흥미로운 점은, 역으로 빌러비드가 세스를 엄마처럼 보살피는 이유 또한 중항항로에서 잃어버린 본인의 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세스는 빌러비드에게 '배 위에서 한 번도 웃어주지 않고 뛰어내려버린 야속한 엄마'를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라면, 두 여성 모두 '딸'로서의 박탈된 정체성을 상쇄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엄마이면서 동시에 딸 노릇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두 여성 사이의 '엄마와 딸'의 관계는 어느 한 방향으로 특정되지 않고 중첩되어 있다. 바꿔 말해, 두 여성 사이의 관계는 경계적(liminal)이다. 이에 더해, 릴비스는 빌러비드가 자신의 기억 속에서 '이름 없던 엄마'(그래서, 노예제 역사 속에서 이름 없이 희생된 이들의 표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에게 '세스'라는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역사를 수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457). 이제 세스가 그 모든 이름 없이 죽어간 노예제의 희생자들을 대신한다면, 세스가 과거의 울가미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때, 그것이 곧 빌러비드의 기억 속 엄마를 비롯해 과거 노예제의 모든 희생자의 재탄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스의 회복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빌러비드의 존재는 주체성과 시간의 경계까지 넘나드는(liminal) 어떠한 것이다.

연장선에서, 빌러비드는 세스 뿐만 아니라 124번지에 속한 사람들에게 '위험한 구원자'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녀는 고립된 채 죽은 삶을 살아가는 124번지 사람들의 굳은 의식에 균열을 내는 존재이다. 빌러비드는 세스, 덴

버(Denver), 폴 D(Paul D)가 각자의 과거를 돌아보고 억압된 내면과 마주하도록 한다. 그녀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이 잊고자 하는 과거 기억을 끊임 없이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빌러비드의 존재로 인해 침묵 속에 묻어둬야 했던 “말할 수 없는”(unspeakable, 58; 199) 과거는 말해지고, 이후 각각의 캐릭터들은 심리적 족쇄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게 된다. 비유적으로 말해, 빌러비드와의 조우를 통해서 각 캐릭터들이 수행하게 되는 것은 과거를 허물고 다시 지음으로써 자신들의 미래를 재구성하는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릴비스는 각 캐릭터를 ‘되어가는 주체’로, 그들의 관계를 ‘되어가는 관계’로 해석한다.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심축으로서의 존재가 124번지의 화신인 ‘빌러비드’라면, 그녀는 실로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세스, 덴버, 폴 D와 맺고 있는 빌러비드의 관계가 마치 델타(Delta)²⁾처럼 중심축을 이루며 경계적(liminal)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술하기 위해 각각의 케이스를 약술하자면 우선 가장 핵심적으로 세스의 상흔을 언급해야 한다. 그녀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는 ‘나름의’ 고향이었던 스위트홈(Sweet Home)에 새

로운 노예 주인으로 학교선생(schoolteacher)이 오면서 시작된다. 노예들의 ‘동물적 속성’과 ‘인간적 속성’을 구분하여 실험을 하는 새로운 주인으로 인하여 세스를 비롯한 스위트홈의 노예들은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치욕

2) 라캉의 보로미안 매듭을 뒤집어 놓은 다이어그램에서 각각의 원이 전체성(wholeness)을 상징한다면, 한가운데 있는 삼각형은 그 전체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부로부터 찢어진 틈, 구멍((w)hole)을 상징한다. 라캉의 이론에서 이곳은 실재계의 파편으로서의 ‘오브제 아’(objet a)가 위치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비-전체’(not-whole)의 역할과 관련하여 ‘여성’(woman)으로 연결되는 지점이다(Zižek 116). 이 뒤집어진 삼각형의 텅 빈 공간, 즉, 델타(Delta)는 주체를 꿰뚫어버림으로써 주체를 빗금 그어진 주체로 만드는 실재계적 공간이다. 동시에, 이곳은 상징계적 언어가 실패하는 장소이다. 이 여성적 장소에서 ‘여성’이 존재하는 방식은 모든 남근중심적 입장에 저항하며 ‘비-전체’로서의 파열구(the (w)hole)가 되는 것이다. ‘델타’의 개념에 대해서는 줄고 「Delta (▽), the Ek-static Site of the Feminine Love in William Faulkner’s *Go Down, Moses*」, 『미국소설』 19권 3호, 2012, 169-194쪽 참조.

적이고 비인간적인 고통스러움을 겪게 된다.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게 된 세스와 동료 노예들이 탈출을 시도하지만 이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남자 노예들은 붙잡히거나 죽임을 당하고, 만사인 상태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도망친 세스는 에이미 덴버(Amy Denver), 스탬프 페이드(Stamp Paid)와 같은 조력자들 덕분에 기적적으로 덴버를 낳고 베이비 석스(Baby Suggs)를 찾아가 처음으로 인간다운 자유를 맛보는 듯 했다. 그러나 그녀를 쫓아 노예사냥꾼이 되어 찾아온 학교선생 일당을 마주하자 세스는 이성을 잃고 어린 첫째 딸의 목숨을 제 손으로 끊고 만다. 세스가 평생 지고 가야 할 이 사건에 대한 죄책감과 관련하여 그녀의 대응은 단순하다. 그녀는 그저 끔찍한 기억을 의식적으로 억압하고 다시 떠올리지 않으려 노력할 뿐이다. 그런 세스가 애써 들추지 않았던 존속살인에 대한 기억은 물속에서 걸어 나와 124번지 앞에 기대서 있는 빌러비드를 마주한 순간 양수처럼 터져 버린 그녀의 오줌 즐기와 함께 깊은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온다. 대략 열여덟에서 스무살 정도로 묘사되는 빌러비드는 세스가 18년 전 죽인 첫 딸이 살아 있다면 그쯤 됐을 법 해 보이는 여자다. 정확히 세스의 죽은 첫 딸이 귀환한 것이라고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빌러비드’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그녀로 인해 세스는 인생의 두 번째 변곡점을 맞이한다.

세스가 트라우마와 관련하여 기억을 지우고자 한다면 폴 D는 기억을 가슴에 묻고 욕망을 제어하는 인물이다. 그는 스위트홈의 주인이 바뀌며 발생한 끔찍한 일과 동료들의 죽음을 겪은 후 자신의 사내다움에 대해 회의를 느끼며, 모든 욕망에서 초월하여 떠도는 삶을 택한다. 이러한 욕망의 의식적 억제제는 ‘담배 깡통’(tobacco tin)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은유를 통해 드러난다. 소설에서 폴 D는 오랜 시간 끝에 할레(Halle)와 식소(Sixo), 다른 형제들(Paul A, Paul F), 학교 선생, 수탑 미스터(Mister)에 대한 기억을 담배 깡통 속에 집어넣었으며, 124번지에 왔을 무렵에는 이 세상 어떤 것도 그 깡통의 뚜껑을 열 수 없었다고 표현한다. 그런 그였기에 흑인 노예가 무언가를 깊이 사랑하는 일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그가 세스의 사랑을 너무 짙다고 표현하는(“Your love is too thick.” 164)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한 폴 D에게 빌러비드는 억누른 욕망을 자극하는 위험한 존재였다. 그는 124번지에 찾아온 빌러비드가 점점 기력을 회복하여 존재 자체로 빛을 발하자 불안과 거부감을 느낀다. 이는 그의 내면의 욕구가 만들어

넨 투사(projection)라고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폴 D는 자신의 일깨워진 성적 욕망을 부정하기 위해 그것을 빌러비드의 욕구로 전가하고 싶었던 것일지 모른다. 시간이 갈수록 빌러비드를 향한 그의 감정은 분노로 치달고, 심지어는 “그녀를 때려눕히고 싶었다”(he wanted to knock her down. 116)고 까지 표현한다. 이러한 태도는 반동 형성(reaction formation)에 해당할 수 있다. 반동 형성은 어떠한 충동을 느낄 때 그것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충동을 감추는 것이다. 즉, 폴 D는 빌러비드에게 느끼는 강한 끌림을 부정하고자 반대로 그녀를 향한 증오를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가장 긍정적인 캐릭터로 읽히는 덴버는 어떠한가? 덴버 또한 다른 이들 못지않은 내면의 아픔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방어 기제들을 사용하지만 결국 소설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바람직하게 자아를 회복하는 인물이다. 그런 덴버의 상처는 기본적으로 상실에 관한 것이다. 처음에는 오빠들인 뷰글러와 하워드를, 다음에는 할머니인 베이비 석스를 잃는다. 사실 그에 앞서 덴버가 가장 먼저, 태어날 때부터 겪은 상실은 아빠의 존재인데, 덴버는 아빠의 부재를 견디기 위해 현실 부정이라는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다. 아빠가 없는 덴버에게는 엄마인 세스가 이상화의 대상이었겠으나 넬슨 로드(Nelson Lord)의 질문으로 인해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감옥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그 결과 그녀가 전적으로 의지해왔던 이상적인 어머니 상 또한 잃게 된다. 아기였던 언니를 무참하게 죽인 사람이 엄마가 맞는지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덴버는 세스에게 직접 묻지만 차마 대답을 들을 용기가 없었던 덴버는 심인적인 이유로 2년이 넘도록 귀가 멀어버린다. 그에 더해, 덴버는 집 밖으로 한발자국도 내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는 퇴행(regression)의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세스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엄마가 자신 또한 죽이려 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안정적 애착 형성에 실패하게 된다. 그로 인한 애정의 결핍은 아이러니하게도 빌러비드를 향한 덴버의 현실적 보살핌을 낳는다. 덴버는 외부인인 빌러비드를 극진히 간호하며, 그녀의 눈길을 받기 위해 원하는 것은 앞장서서 충족시켜 주고자 노력한다. 덴버의 경우 불안정한 애착 관계로 인해 애정을 갈구하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자 자신의 소망을 빌러비드에게 투사하고, 그녀가 사랑 받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본능을 대리 만족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혀 어찌 보면 정신적 마비 상태를 겪고 있던 캐릭터

들에게 굶아버린 과거의 상처를 다시 여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치유를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각 캐릭터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돌(아)보고 자아(selfhood)를 재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바로 빌러비드라면, 실제로 빌러비드와 함께 한 이후 세스는 지금껏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게 되고, 폴 D의 굳게 닫아 놓아 녹슬어버렸던 담배 강통의 뚜껑이 조금씩 열리게 되며, 텐버는 문지방을 넘어 집 밖으로 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과거 질투로 인해 세스의 가족을 배신했던 흑인 공동체 여성들까지도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제2의 기회를 얻게 된다. 말하자면, 다른 캐릭터들의 ‘자아’와 ‘관계’를 회복시키는(다른 말로, 그들의 재탄생rebirth, 회복renewal, 부활resurrection을 돕는) 매개로서의 존재가 빌러비드라면, 그녀가 왜 이 모든 “되어가는 관계”(들)의 중심점이면서 동시에 경계적인(liminal) 인물로 해석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등 뒤에 난 입 벌린 상처’로서의 ‘빌러비드’가 요구하는 사랑

한편, 모리슨의 소설에서 처음으로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남성 인물인 폴 D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빌러비드의 또 다른 속성을 파악할 수 있다. 빌러비드는 폴 D에게 반복적으로 “내 안을 만지고 내 이름을 불러달라”(116; 117; 263)고 요구한다. 여기서 필자는 빌러비드를 ‘억지로 봉합되었던 과거의 굶은 상처’를 표상하는 인물로 읽고자 한다. 세스의 상처, 폴 D의 상처, 그리고 “육천만 명 그리고 그 이상의 사람들”(“Sixty Million and more”; 책의 헌사)의 상처 또한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과거로 인해 수십, 수백 년 동안 치유되지 못했다면, 빌러비드는 바로 그 모든 ‘입 벌린 상처’의 육화(embodiment)인 것이다. 그래서 폴 D가 ‘빌러비드’의 요구대로 그녀를 만지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부정되고 외면되어 굶을 대로 굶아버린 입 벌린 상처를 어루만지는 행위로 해석되어야 한다. 과거에 묶이지 않으려 매순간 도망쳐온 폴 D는 빌러비드의 이름을 부르고 몸을 만지는 순간 담배 강통 속에 꽂꽂 감춰두었던 그의 죄의식과 아픈 기억들을 대면하게 된다. 그렇게 과거의 기억

들과 마주하고 흑인이기에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 남성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욕망을 자각하는 순간 그는 ‘붉은 심장’을 외치며 살아있는 삶을 갈망하게 된다.

필자의 주장처럼, 빌러비드가 역지로 봉합 되었던 과거의 곪은 상처를 상징한다면, 그래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빌러비드』가—“내 안을 만지고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빌러비드처럼—그 상처에 대한 제대로 된 ‘읽기’를 요구하고 있다면, “작가로서 모리슨의 침묵과 캐릭터(들)에게 강요된 침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592)고 말한 나오미 만델(Naomi Mandel)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모리슨이 ‘말할 수 없는 것’(unspeakable)을 글쓰기를 통해 불러내기 때문에 이 글쓰기와 그에 대한 읽기가 윤리적 참여를 내포하고 있다면(김미현 30), 우리는 저자의 ‘그 말할 수 없는 것을 향한 제스처’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였다 주장하는 것은 오만이며 폭력일 수 있기에, 모리슨은 독자를 그러한 폭력적인 오독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그것은 전할 이야기가 아니(었)다”라고 세 번 반복한 후 “빌러비드”(Beloved. 275)라는 마지막 말로 소설을 끝마친다. 언어의 한계를 전경화하는 이 대목 외에도 소설에는 역설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든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내러티브 기술이 구사된다.

그런데, 소설 『빌러비드』에 등장하는 ‘빌러비드’로 인해 전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이야기들이 딱히 뭐라 특정 지을 수 없는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전달된다고 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명확하지 않게 말해지는 낯두리 같은 이야기들이 수많은 해석을 통해 더 많고 풍부한 이야기들을 전달해낸다. 이런 역설적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대목은 세스, 빌러비드, 덴버, 세 소녀의 대화가 집약되어 있는 2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혹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낯두리들로 인해 124번지는 매우 소란스러워진다(124 was loud. 169). 길거리에서조차 들릴 정도로 124번지는 시골벽적해진다. 유령이 출몰하던 1장에서보다도 빌러비드가 세스와 덴버와 함께 하는 2장에서 124번지는 훨씬 시끄러워진다. 그러나 그녀들끼리도, 혹은 문밖에서 듣게 되는 누구라 할지라도, 또 해당 대목을 읽게 되는 독자들조차도 그녀들이 뱉어내는 탄식과 감탄과 원망과 그리움들이 뒤범벅이 된 이야기들을 온전히 해석해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의미화 될 수 없는

이야기들은 어찌되었든 독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유령이 출몰하던 124번지, 이제는 정체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여인 빌러비드가 들어와 살고 있는 124번지는 실재계적 존재들이 출몰하는 언캐니한 공간이다. 그래서 이 기이한 공간에서 빌러비드로 인해 촉구되고, 말해지고, 전달되는 이야기들 또한 실재계적 속성을 갖는다. 라캉적 맥락에서 실재계는 상징계적 언어가 중시되는 파열구이다. 그런데 의미화 연쇄고리의 작동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곳을 통해 실재계의 파편들이 출몰한다면, 바꾸어 말해, 우리는 텍스트의 언어화 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되짚어 봄으로써 실재계적 파편들과 조우할 수 있는 셈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쉽게 파악/정의 될 수 없는 언어들이 결국엔 역설적으로 '사랑'에 관한 언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대목에서 저자 모리슨이 소설과 그 제목을 구상할 때 떠올렸다는 로마서 9장 25절을 주목하게 된다. 해당 글귀는 책의 현사 바로 뒷장에 배치되어 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내가 사랑하지 않은 자를 ‘나의 사랑하는 자’(beloved)라고 부를 것이다.” 사랑에 대한 권리를 참혹하게 박탈당한 이들을 다시 ‘사랑하는 자’(beloved; 빌러비드)로 회복시킨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또는, 의미화의 연쇄고리를 벗어나는 사랑의 언어를 제대로 읽어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해 논하기 위해 필자는 세스의 등에 난 상처를 대하는 폴 D와 에이미 덴버의 태도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언어의 대표적인 사례는 너무도 오랫동안 외상적 기억을 가뒀 두기 위해 입을 다물고 있던 세스가 지난 과오에 대한 본인의 진심을 폴 D에게 털어놓는 대목이다. 세스가 너무도 뒤늦게 털어놓는 많은 이야기들은 지독한 외상적 기억들이 이야기하는 언어의 한계로 인해 도중에 툭 툭 끊기며 많은 망설임과 말 줄임의 기호로 묘사된다. 심지어 그 ‘말해질 수 없는 것’(the unspeakable)의 물리적 경계를 암시하기라도 하듯 그녀는 방을 빙글빙글 돌기까지 한다(Mandel 596).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다시 기억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상처를 기억하고 이야기하면서 재기억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상처는 치료되지 않는다. “기억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에게 남아 있는 트라우마의 기억을 이야기하기의 기억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지니고 있는 피해자는 이야기하는 생존자

가 되고, 새로운 자아 형성 과정을 거치게 된다”(손운산 215). 어찌되었든, 엄청난 기억의 고통을 감수하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해 마음 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 상자를 폴 D에게 가장 먼저 꺼내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오지 않는 124번지에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손님이 바로 자신과 함께 노예 생활을 하며 함께 그 기억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폴 D였기 때문이다. 폴 D가 자신과 함께 과거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의 등의 상처를 쓰다듬으며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일 때, 세스는 조심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잔혹한 학대의 흔적인 세스의 등의 상처는 그간 그녀가 돌보지 않아왔던 것이다. 너무 깊은 상처로 인한 등의 감각의 상실은 세포의 상실 때문만이 아니다. 그녀 스스로 상처와 트라우마를 의도적으로 느끼지 못하게끔 애써왔던 것이다. 그동안 자신의 고통을 함께 나눌 이가 없었기에 고집스럽게 지켜온 오랜 침묵으로 인해 어찌면 감각의 마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마비상태에 있었던 그녀가 조금씩 마음의 빗장을 열게 되자, 감각의 회복과 더불어 깊은 번뇌가 찾아온다. 억눌러 두었던 많은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자 감당하지 못하게 된 세스는 오래 전 죽은 시어머니 베이비 석스를, 그리고 그녀의 손길을 그리워한다.

‘내려놓아라, 세스야. 창과 방패를 내려놔. 내려놔. 둘 다 내려놓아라. 강가에 내려놓는 거야. 창과 방패를. 이젠 더 이상 전쟁을 생각하지 말려 무나. 그 더러운 일들은 다 내려놓아라. 창과 방패를’이라고 말해주고, 손가락에 꾸욱 힘을 주며 나직한 훈계조로 타일러주면, 세스도 기꺼이 그럴 수 있을 텐데. 불행과 후회와 원한과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던 무거운 칼들을, 그녀는 저 아래 맑은 물이 굽이치는 강가에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았다.

“Lay em down, Sethe. Sword and shield. Down. Down. Both of em down. Down by the riverside. Sword and shield. Don’t study war no more. Lay all that mess down. Sword and shield.” And under the pressing fingers and the quiet instructive voice, she would. Her heavy knives of defense against misery, regret, gall and hurt, she placed one by one on a bank where clear water rushed on below. (101)

폴 D에게 마음이 열릴수록 사무치게 번뇌하는 세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녀가 18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원한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창과 방패를 내려놓고 자신과 세상을 용서하려는 마음을 먹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모리슨은 세스가 자신을 이해해줄 것만 같은 누군가를 얻게 되었을 때에야 마침내 정신적 마비상태에서 벗어나 걱정적으로 들끓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믿어주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래서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의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즉, 결국 세스가 그토록 오랫동안 안으로만 삭이며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그녀를 믿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공동체와 동행자가 부재했기 때문인 것이다. ‘들어주는 이’에 대한 ‘실패’에 기반한 ‘재기억’의 과정은 그래서 회복을 꿈꿀 수밖에 없다. 회복으로의 가능성을 꿈꾸고 희망하게 된 세스의 재기억은 괴로우면서도 담담하고, 쓸쓸하면서도 벽찬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초반에 그녀의 아픈 과거를 들어주며 그녀의 등의 상처를 입 맞추고 보듬어 주었던 폴 D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으로 흘러간다.

폴 D는 사랑을 함에 있어 마치 생존본능처럼 절제를 해왔다. 도 넘은 사랑, 즉 많은 것을 사랑하면 (그런 권리가 허락되지 않았던 한때의 노예로서) 자신이 위험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말 위험해. 한때 노예였던 여자가 뭔가를 저렇게나 사랑하다니, 무척이나 위험한 것이야”(45)라고 폴 D는 생각한다. 지금껏 붉은 심장 대신 녹슨 담배 깡통을 가슴에 넣고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한 삶, 즉 살기 위해 역설적으로 죽은 삶을 살아왔던 그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심장이 뛰면 무언가를 원하고, 살고자 하고, 욕망하기 때문에 그는 살고자 하는 욕망 자체를 입다물게 해왔고,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였다. 폴 D가 흑인 노예로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택한 방법은 너무나 모순적이게도 살고자 하는 욕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흑인 여성 노예이면서 당당히 자신의 아이를 향한 욕망, 사랑을 주장하는 세스를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세스가 자신이 알던 그녀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자, 폴 D는 “세스, 당신은 두발 달린 사람이니 네발 달린 짐승이 아니야”(“you got two feet, Sethe, not four.” 165)라고 말하며 그녀로부터 도망친다. 그렇게 자신 몫의 수치까지 그녀에게 떠넘기고 “그녀의 이야기”(her-story)로부터 후퇴한다(Mandel 598). 이제, 그토록 믿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와 그녀 사이에 심연 같은 수풀이 자라나

거대한 장벽을 이룬다.

다시, 앞서 주장했듯이, 빌러비드가 ‘역지로 봉합 되었던 과거의 굽은 상처’를 표상한다면, 그래서 저자 모리슨이 소설 『빌러비드』를 통해 어떤 ‘사랑’을 말하고자 하는지(바꿔 말해, ‘입 벌린 상처’로서의 ‘빌러비드’가 어떤 사랑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독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답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세스의 ‘등에 난 상처’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해야 할지 먼저 물어야 할 것이다. 왜 하필 등에 난 상처인가. 왜 세스는 폴 D가 그녀의 등의 상처에 입 맞추고 보듬어줄 때 마음의 빗장을 열게 되는가. 무엇보다 등은 시야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취약할뿐더러 등에 상처가 날 경우 상처 입은 자 스스로 치료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등 뒤에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을 보살펴줄 다른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빌러비드’가, 혹은 『빌러비드』가 ‘등 뒤에 난 입 벌린 상처’를 표상한다면, ‘그 상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 몫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필자는 이에 대해 캐리 울프(Cary Wolfe)의 논리를 원용해, (세스의) 등의 상처에 또 다른 상처를 더할 능력이 없을 때 그것이 더 윤리적인 대응능력(response-ability)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울프는 “자서전적 동물”(The Autobiographical Animal)에 대한 데리다의 강연을 인용하며 인간을 인간으로, 우리를 더 우리답게 해주는 것은 보다 급진적으로 말해 우리가 “~을 할 수 있는 존재”(“being able to~”)이기보다는 “~을 할 수 없는 존재”(“not being able [to]~”)일 때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Wolfe 28).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스의 등의 입 벌린 상처에 대해 폴 D와 전혀 상반된 대응능력을 발휘하는 에이미 덴버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도망친 백인 노예로 추정되는 에이미는 성경적인 맥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인물이다. 에이미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노예 사냥꾼들에게 쫓기고 있는 세스를 발견한 후 그녀를 보살피고 그녀의 출산을 돕는다. 의미심장하게도 에이미(Amy)의 이름이 라틴 어원으로 ‘빌러비드’(beloved)를 뜻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그녀와 관련해 필자가 특별히 주목하는 점은 세스의 등에 난 상처, 문자 그대로 ‘입 벌린 상처’를 읽어내는 그녀의 방식이다. 심한 채찍질에 온군데 살이 깊이 파여 찢겨지고 곳곳에 피가 엉겨 붙어 있는 세스의 등에 난 상처를 에이미는 꽃을 피운 벚나무로 읽는다. 그녀의 해석과 언어 사용은 단순히 상처를 미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니콜

쿤라트(Nicole M. Coonradt)도 주장하듯이, 역사 속에서 억압받고 규정되어온 ‘타자’들이 사회의 부정의를 바꾸기 위해서는 ‘규정하는 자’들이 전용해왔던 언어들을 다른 방식으로 징발해 사용할 수밖에 없다(178). 그리고 결국 이것이 작가 모리슨이 자신의 독자들을 위해 작업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에이미의 ‘다르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다. 고통과 상처와 수치를 있는 그대로 밝혀내고 읽어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을 어떤 언어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좀 더 견딜만한 것으로 변모할 수 있다. 이것은 진실을 감추거나, 외면하거나, 훼손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에이미가 그러했듯,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정성을 기울여 보호하고 돕는 이야기이다. 이런 이유로, 에이미는 저자 모리슨이 소설의 ‘내포 독자’(implied reader)로 상정한 이들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비평가들이 지적하듯이 소외된 백인 여성으로서의 에이미의 존재는 잠재적인 인종간 치유를 담지하며 백인 공동체로의 연결점까지 제공한다. 빌러비드가 ‘등 뒤에 난 입 벌린 상처’의 표상이라면, 에이미야말로 문자 그대로 “내 안을 만지고 내 이름을 불러달라”는 빌러비드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는 독자의 가능태인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비유적으로 소설 『빌러비드』 또한 ‘세스의 등에 난 상처’로 연결시켜 해석한다면, 그래서 에이미가 벚나무와 벚꽃이라 이름 부르는 세스의 상처처럼 『빌러비드』 역시 각각의 가치와 웅이 마디들이 하나 하나 다른 기억들과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면, 그것을 읽고 배려하고 보살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소설의 마지막 문장 “빌러비드.”(275)에 대한 해석으로 연결될 것이다.

IV. 독자의 참여를 촉구하는 ‘빌러비드,’ 그리고 『빌러비드』

흑인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모리슨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전면에 내세워 ‘타자’의 문제를 고발하며, 특히 흑인의 구술 전통을 서사에서 복원해 독자가 참여할 공간을 만든다(김미정 17). 따라서 모리슨 소설의 독자는 말해지는 이야기를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완수해야

만 한다. 모리슨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껏 역사 속에서 말해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세상에 전달하는 것을 넘어 독자와 함께 역사를 ‘고쳐 쓰고,’ ‘제대로 기억하고,’ 그래서 ‘과거를 치유/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저자의 정치적 입장과 글쓰기 목적을 고려할 때, 필자는 『빌러비드』를 읽는데 있어서 독자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소설의 결말에서 빌러비드가 떠난 후, 같은 과거와 아픔을 지니고 있음에도 세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못한 채 그녀의 행동을 ‘네 발 달린 짐승’에 비유하며 떠나버렸던 폴 D가 다시 세스에게 돌아온다. 폴 D는 또한 한 번 과거로부터, 죄의식으로부터 도망쳤지만 결국 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자신을 정착하고 싶게끔, 스스로를 사랑하고 싶게끔 만들어 주는 세스의 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빌러비드를 또 다시 잃었다고 생각해서 상심으로 인해 쇠약해진 세스를 달래며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녀의 이야기 옆에 두고 싶다”고 생각한다(He wants to put his story next to hers. 273).

이 문장으로 우리는 패치워크(patchwork)처럼 구성되어있는 소설의 형식이 의도적인 것임을 알아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소설 속에서 각 캐릭터들의 사연은 마치 누비이불(quilt)처럼 서로 나란히 붙여져 하나의 큰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데, 이것이 곧 그들의 재기억의 과정이며 치유의 과정이다. 각 캐릭터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기억 속에서 부재하는 다른 사연들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이의 기억들과 상면하여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공유함”(Peach 117; 오병석 56에서 재인용)으로써 옛 ‘기억’을 재구성한다. 오병석도 주장하듯이, 모리슨은 이러한 치유 과정을 통해 그들 관계의 평등과 호혜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그 각각의 이야기들이 말해지도록 했던 것이 ‘기꺼이 듣고자 하는’ 빌러비드의 존재였다는 점이다. 그녀는 각 캐릭터들에게 계속해서 그들 각자의 이야기를 “말해달라”(tell me)고 요구해왔다. 다시 말해, 빌러비드가 ‘들어주는 이’로서 존재하기에 (각 등장인물들의) ‘전해질 수 없었던, 전해질 이야기가 아니었던 이야기들’이 결국 독자에게 전달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다시, 이 『빌러비드』에 대한 독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너무나 당연하게도 모리슨은 이 소설을 통해 독자와의 연대를 촉구한다. 전술했듯이, 소설에서 세스가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않기 위해 자기방어로 가득 찼던 원인은 그녀를 믿고 이야기를 들어줄 공동체와 동행자가 없었기 때문이

다. 그런 점에서, 『빌러비드』가 “내 안을 만져주고 이름을 불러달라”는 빌러비드(들)의 요구에 모리슨이 응답한 방식이라면, 모리슨은 이 소설을 통해 ‘사랑의 윤리학’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라캉적인 맥락에서, 사랑은 이미 상징계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불가능한 실재에 응답할 때 윤리적 위상을 획득하게 된다(민승기 142). 여기서 ‘사랑’은 갑작스럽게 출현하는 오브제 아(*objet a* 실재적 대상 소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재-주체화가 이루어지는 한 가지 방식이다. ‘사랑’은 내 안의 타자성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망각하고자 하는 관계이지만 사랑에 노출되지 않고서는 주체는 진정한 주체로 거듭날 수 없다(민승기 125). 라캉적 맥락의 ‘사랑’의 속성을 고려할 때, ‘빌러비드’가 (또한, 『빌러비드』가) 바로 이 ‘오브제 아’의 자리에 위치한다. 다르게 말하자면, ‘빌러비드’ 혹은 『빌러비드』가 바로 과거, 현재, 미래가 만나는 장소이며 증오, 슬픔, 트라우마가 사랑으로 변모하는 장소일 수 있다. 그렇다면, 소설에서 각 등장인물들이 ‘빌러비드’와의 만남을 통해 재-주체화를 경험하듯이, 모리슨이 이 소설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빌러비드』를 통한 독자 각각의 ‘재-주체화’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하나의 존재로 불리고 사랑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빌러비드가 과거에 사랑 하지도 사랑 받지도 못했던 흑인 희생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라면, 그녀의 이야기인 『빌러비드』를 어떻게 읽어내느냐는 결국 다시 ‘사랑’의 문제이다. 빌러비드를 구심점으로 조각조각 뒤틀어진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독자의 책무(*responsibility, or response-ability*)와 관련하여 필자가 다시 한 번 주목하는 점은 소설의 마지막이 “빌러비드”(Beloved)라는 한 단어로 끝난다는 사실이다. 소설의 제목을 반복하는 듯한 이 문장은, 우선 작가 모리슨이 “기억에서 지워지고 그 존재가 기록되지 않은 인물들”(274)을 호명하여 애도하는 방식이다.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것은 흑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의미화 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름을 불러주어 회복시키려는 제스처이며, 그들이 과거와 현재에 존재하고 또 미래에도 함께 살아갈 것임을 천명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소설의 제목이자 동시에 소설의 마지막 단어인 “빌러비드”(Beloved)는 일종의 문자적 수명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윌리엄 핸들리(William Handley)가 지적하듯이 “『빌러비드』가 이름 없는, 이름 지을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책임을 묻는”(681; 김미현 30에서 재인용) 텍스트라면, 우리는 당연히 여기서 독자의 역할을 생각해봐야만 한다.

만델의 주장처럼, 제목이자 마지막 단어인 “빌러비드”(Beloved)가 언어로부터 추방된(추방되어온) 것에 대한 부름이라면(600), 마지막 문장들에서 우리는 ‘빌러비드’의, 그리고 『빌러비드』의 실재계적 속성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빌러비드’를, 그리고 『빌러비드』를 통해 실재계의 파편들과 조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전술한 라강적 의미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재-주체화를 겪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미 주장했듯이, 이것은 ‘등 뒤에 난 입 벌린 상처’로서의 ‘빌러비드’가 요구하는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문제이다. 세스 그녀 자신의 경우, 과거를 재기억하고 과거와는 다른 미래를 꿈꾸므로써 현재를 바꾸었을 때, 정신적 마비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삶을 추슬러 나갈 의지를 재정비하게 된다. 그때 그녀는 스스로의 존재를 재구성(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녀의 등에 있는 나무에 꽃이 피는 길이다. 이것이 세스의 재-주체화, 즉 ‘재탄생’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소설의 마지막 문장, “빌러비드”(Beloved. 275)를 해석해보자면, 작가 모리슨은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독자들이 에이미와 같은 역할을 맡아줄 것을 기대하며 그 공동의 작업으로 독자들을 불러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전달될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가 전달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읽어내느냐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끔찍한 기억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죽음에 이르지 않고 다시 삶에의 의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다. 빌러비드가 124번지의 화신이라면, 한이 서린 그곳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 독자의 할 일이며, 그것은 비유적으로 말해, 세스의 등에 난 상처를 꽃잎 하나하나까지 읽어주는 일이다. 그리고 에이미로 재현되던 희망이 이름과 함께 덴버에게 전수된다면, 소설의 마지막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124번지의 문지방을 넘어서는 덴버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독자인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 모리슨은 『빌러비드』를 통해 묻고 있다.

V. 결론

이상 필자는 모리슨의 『빌러비드』에서 소설의 제목이 ‘빌러비드’이며, 작품 속에 등장하는 한 캐릭터의 이름이 ‘빌러비드’이고, 소설의 마지막 문장

또한 ‘빌러비드’라는 한 단어인 점에 착안해, ‘빌러비드’를 세 가지 맥락에서 읽어보았다. 저자 모리슨이 『빌러비드』를 통해 어떤 사랑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 독자들에게 어떤 의무가 촉구되고 있는지 읽어 보려는 시도였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관계를 뒤집어진 라캉의 보로미안 매듭 그림에 적용시켜보면 ‘델타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코 ‘빌러비드’이다. 세스, 덴버, 폴 D라는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현재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캐릭터들 앞에 나타나 함께 지내면서 빌러비드는 그들로 하여금 잊고자 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입 밖에 소리 내어 말하게 만든다. 빌러비드는 각 인물들이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누군가이면서 동시에 그들의 욕망의 원인-대상으로 기능한다. 입 벌린 상처의 체현이기도 한 빌러비드는 “내 안을 만져주고 이름을 불러달라”고 요구함으로써 각 인물들이 스스로의 곪은 상처를 돌아보고 보듬어 치유의 과정을 겪어 나가도록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빌러비드는 ‘사랑받는 자’이다.

“이미 상징계의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불가능한 실재”(민승기 142)의 존재로서 빌러비드는 각 캐릭터들의 ‘자아’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의 ‘관계’ 또한 재구축하여 회복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소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두에 관여한다. 그에 더불어, 이러한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독자들 또한 『빌러비드』를 통해 출몰하는 실재계적 파편들과 조우하도록 함으로써 독자의 재-주체화까지 촉구하고 있는 존재가 ‘빌러비드’(또는 『빌러비드』)인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124번지의 현현인 동시에 델타의 화신처럼 읽히는 ‘빌러비드’는 마치 ‘씻김굿’을 하는 듯한 『빌러비드』라는 소란스러운 잔치에 독자를 초대하여 참여하도록 만든다. 한이 서린 곳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또 그러한 상처와 트라우마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살아남은 자들의 안녕한 삶에 함께 동행해주기 위해 독자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함으로써 독자 개인의 삶까지도 재구축하도록 촉구하는 텍스트가 바로 모리슨의 『빌러비드』인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미정. 「타자의 공간을 통해 ‘책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코라적 글쓰기: 어슐러 르 권의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과 토니 모리슨의 『가장 푸른 눈』을 중심으로」. 『현대영미소설』 24권 1호, 2017. 5-33쪽.
- _____. 「Delta (▽), the Ek-static Site of the Feminine Love in William Faulkner’s *Go Down, Moses*」. 『미국소설』 19권 3호, 2012. 169-194쪽.
- 김미현. 「윌리엄 포크너의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와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에 나타난 모성과 자크 데리다의 “책임”」. 『미국소설』 16권 2호, 2009. 5-35쪽.
- 민승기. 「사랑의 윤리학」. 『비평과이론』 9권 2호, 2004. 119-149쪽.
- 손운산. 『용서와 치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 오병석. 「모리슨의 『빌러비드』: 공동체의 결속」. 『신영어영문학』 21호, 2002. 45-65쪽.
- 이승은. 『토니 모리슨』. 서울: 평민사, 1999.
- ALEXANDRU, Maria-Sabina Draga. “Love as Reclamation in Toni Morrison’s African American Rhetoric.” *European Journal of American Culture* 27.3, 2008. pp.191-205.
- BAKERMAN, Jane S. “Failures of Love: Female Initiation in the Novels of Toni Morrison.” *American Literature: A Journal of Literary History, Criticism, and Bibliography* 52.1, 1981. pp.543-563.
- COONRADT, Nicole M. “To Be Loved: Amy Denver and Human Need—Bridges to Understanding in Toni Morrison’s *Beloved*.” *College Literature* 32.4, 2005. pp.168-187.
- LILLVIS, Kristen, “Becoming Self and Mother: Posthuman Liminality in Toni Morrison’s *Beloved*.” *Critique: Studies in Contemporary Fiction* 54.4, 2013. pp.452-464.
- MANDELL, Naomi. “‘I Made the Ink’: Identity, Complicity, 60 Million and More.” *Modern Fiction Studies* 48.3, 2002. pp.581-612.

- MORRISON, Toni. "The Site of Memory." *Inventing the Truth: the Art and Craft of Memoir*. Ed. William Zinsser.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7. pp.103-124.
- _____. *Beloved*. New York: Vintage International, 2004.
- O'REILLY, Andrea. *Toni Morrison and Motherhood: A Politics of the Heart*. Albany: State U of New York P, 2004.
- PEACH, Linden. *Toni Morrison*. New York: MacMillan, 2000.
- TAYLOR-GUTHRIE, Danille. ed. *Conversations with Toni Morrison*. Jackson: UP of Mississippi, 1994.
- WOLFE, Cary. "Flesh and Finitude: Thinking Animals in (Post) Humanist Philosophy." *SubStance* 37.3, 2008. pp.8-36.
- ŽIŽEK, Slavoj. *The Puppet and the Dwarf*. Cambridge: MIT Press, 2003.

❖ ABSTRACT

Reading Love with ‘Beloved’ in Toni Morrison’s
Beloved

Kim, Mijeong

In American history, African American people were not allowed to love and be loved on their own time during the era of slavery, while living on slave master’s lands as property. Toni Morrison’s *Beloved* describes dysfunctional love as the direct outcome of such historical trauma, and portrays individual characters who re-construct themselves by retelling their own poignant and personal traumatic histories. This paper focuses on the fact that ‘Beloved’ in Toni Morrison’s *Beloved* can be read in three distinct contexts. First, the title of the novel is entitled ‘Beloved;’ secondly, the name of one of the main characters is ‘Beloved;’ and thirdly, the last sentence of the novel is the word ‘Beloved.’ By reading the three contexts of ‘Beloved’ (with the concept of ‘delta’), this paper examines what kind and type of love Toni Morrison wants to talk about and highlight in her book, *Beloved*, and how she encourages her readers to participate in such love in their own lives.

Key Words : Beloved, Toni Morrison’s *Beloved*, Ethical Reading, Ethical Love, Reader’s Response-ability

■ 논문접수일 : 2019. 02. 10

■ 심사완료일 : 2019. 03. 01

■ 게재확정일 : 2019. 03. 11